

만주어 『신약전서』 -중국 대련도서관 소장본-

설련(薛蓮)*

송강호 역**

1. 서론

『성경(聖經)』은 『신구약전서(新舊約全書)』라고도 하는데, “구약(舊約)”과 “신약(新約)”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며, 또한 서양에서 가장 중요한 전적(典籍)이다.

『신약전서』는 전27권인데, “복음서(福音書)”의 가장 이른 것은 대략 1세기 후반에 이루어졌다. 2세기 중엽, 현존하는 4부 판본의 “복음서”가 비로소 연속으로 정형화되어 공인경전(公認經典)이 되었고, “바울서신집”과 “사도행전”은 2세기 전반에 비로소 공인경전이 되었다. “일곱 공동서신(七公函)”과 “계시록”은 2세기 전반을 전후해서 출현하였다.

4세기 초 “신약”의 권위는 점차 다수 교회에 의해 공인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법으로 정해진 법정경전(法定經典)이 편찬되지 않았다. 325-330년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는 시칠리아 주교 유세비우스에게 50부의 경전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397년 제3차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교회 명의로 “신약”의 내용과 목차를 최종 확정하였다.¹⁾

대련도서관(大連圖書館)의 전신은 “남만주철도주식회사대련도서관(南滿洲鐵道株式會社大連圖書館)”인데, 만주어 자료 소장으로 명성이 높다. 풍부한 각종의 옛 문헌은 대단히 귀중한 것인데, 만주어 『신약전서』²⁾도 바로 그

* 설련(薛蓮, 1967-): 중국 대련도서관 고서부 연구원, 고문헌 정리 및 연구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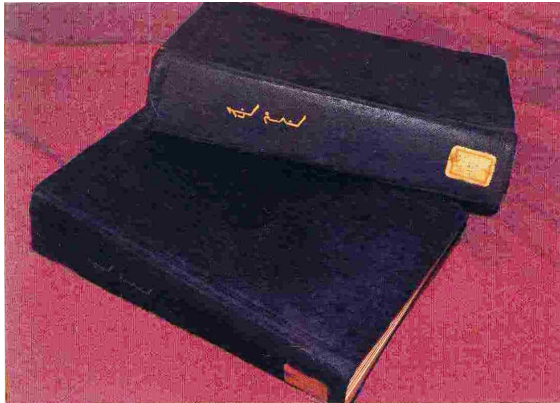
** 국제경교연구회 한국 총무, 『중국어성경과 번역의 역사』, 『만한합벽삼국지』 등 역저자. 역자주: 본 논문의 번역을 허락해주신 대련도서관 설련(薛蓮) 선생님과 「만어연구(滿語研究)」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번역 논문을 검토해 주시고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대구가톨릭대학교 김동소 선생님(現 명예교수)께 감사드립니다.

1) 劉叢如 等, “영어번역성경과 그 중요 판본을 논함(論『聖經』英譯及其重要版本)”[J], 『青海民族研究』(2006), 167-170. 역자주: 참고문헌으로 소개된 원문의 미주(尾註) 부분을 편의상 각주(脚註)로 처리하였다.

가운데 하나이다.

2. 대련도서관 만주어 『신약전서』³⁾

<그림 1> 대련도서관 만주어 『신약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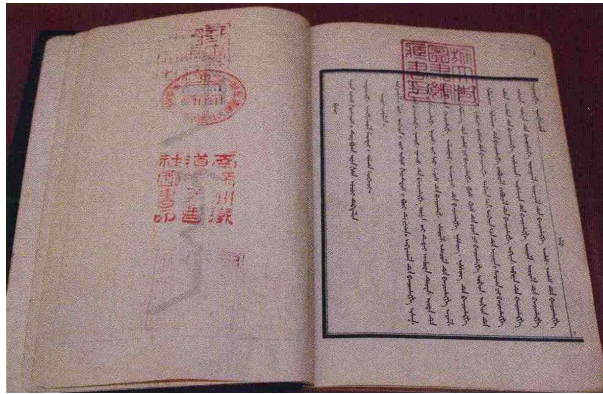
서명 만주어 “ice hese”

- 2) 역자주: 만주족의 언어였던 만주어는 청대에 국어로서의 위치를 점했으나 다수의 한어 사용자들에 둘러싸여 점차 한어에 동화되었다. 청말 서태후의 만주어 폐지령으로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나 오늘날 중국 흑룡강성 부유현 삼가자촌 등에는 80대 노인 가운데 여전히 만주어를 할 줄 아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국에 들어온 예수회 선교사들은 청의 조정에 출입하면서 황제와의 응대 및 고위 관료들과의 교제 차원에서 만주어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696년 남회인(南懷仁, 페르비스트)에 의해 서구어로 된 최초의 만주어 학습서도 나오게 되었으며, 18세기말 예수회 하청태(賀清泰, 뽀아로) 신부에 의해 만주어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다. 그후 러시아 동방정교회의 리포브초브에 의해 만주어 신약이 번역되었는데, 초기 역본은 1859년 중국 상해(上海)의 런던선교회 소속 개신교 선교사였던 알렉산더 와일리(Alexander Wylie, 1815-1887)에 의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부분이 한문성경과 대역되어 만한대역본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만주어 『신약전서』는 성경이 어떻게 만주어로 번역되었는가를 성경 번역학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이번에 소개되는 대련도서관 소장본은 기존의 만주어성경 목록에 나오지 않는 만주어성경으로 새로 발굴된 자료로서의 가치도 있다. 참고로 뽀아로 신부의 만주어성경이 대구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인 김동소 선생님의 의해 번역되고 있으며 마태복음과 주해 부분이 우선적으로 간행될 예정이다. 이 번역이 출간되면 국내의 만주어성경에 대한 이해를 크게 도울 것으로 생각한다.(補註: 2012년 3월 현재 만주어 마태오 복음 연구라는 서명으로 연구서와 자료편이 나와 있다.) 역자주 현재 리포브초브의 만주어성경 마가복음을 번역중이며, 마태복음 산상수훈 부분은 번역을 마치고 독립된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 金東昭, “3種의 滿文 主祈禱文”, 『알타이학보』 5 (1995), 한국알타이학회; 金東昭, “最初 中國語·滿洲語 聖書 譯成者 賀清泰 神父(P. Louis de Poirot, S. J.)”, 『알타이학보』 13 (2003); 趙杰(宋康鎬 譯), “北京語의 滿洲語 基層 研究: 청대 북경어의 언어 접촉”, 『古書研究』 26 (2008), 한국고서연구회.
- 3) 역자주: 한국 독자들을 위해서 “一, 二”로 나누어진 원문의 체제를 내용 전개에 맞춰 총 6개 (1-6)로 세분하고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또 원문이 수록된 「만어연구(滿語研究)」의 만주어 성경 도판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대련도서관 소장 만주어 『신약전서』는 모두 2부로 각각 1책이다. 장정 형식은 두 책 모두 하드 커버의 양장본으로 일치한다. 연활자본(鉛印本)이며, 판식(版式)은 “중서합벽(中西合璧)”이다.⁴⁾ 본문 페이지의 높이(高, 세로)는 23.2cm, 너비(寬, 가로) 15.3cm, 두께(厚度) 4.1cm이다. 광곽(框廓)의 높이는 16.9cm, 너비는 13.9cm이다. 사주쌍변(四周雙邊) 반엽(半葉) 13행(行)이며 행의 자수(字數)는 일정치 않다.

판심(版心)은 순차적으로 만주어 각 부분의 명칭, 만주어 페이지, 아라비아 숫자 페이지로 되어 있다.⁵⁾ 비록 통 페이지가 아니라 날 페이지이지만, 통 페이지에 따라서 페이지를 계산하였다. 즉 2면(쪽, 頁)을 1페이지로 계산하였다.⁶⁾

<그림 2> 대련도서관 만주어 『신약전서』



“南滿洲鐵道株式會社大連圖書館 昭.11.12.11”(타원형)

“南滿洲鐵道株式會社圖書印”(사각형)

본서는 공히 여덟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순서대로 63, 39, 68, 53, 69, 86, 72와 66페이지이다. 서명은 만주어로 “ice hese”라고 하였다.⁷⁾ 1책에는 “南滿洲鐵道株式會社大連圖書館 昭.11.12.11”이라는 붉은색 타원형 도장마

4) 역자주: 판식이 중서합벽이라는 것은 중국식과 서양식을 혼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5) 역자주: 판심(版心)은 책판(冊版)의 가운데 부분을 말하는데, 순서는 위(각부 만주어 명칭), 중간(만주어 페이지), 아래(아라비아 숫자 페이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판심의 경우 앞부분은 “enduringge ewangelium - emu - 1”식이고, 뒷부분은 “marka i ulaha songkoi”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역자주: 책판(冊版)을 이용한 전통적인 제작 방식과 같이 앞뒤 페이지 모두 1장을 1페이지로 산정하는 개념이다. 통 페이지의 1a, 1b가 오늘날 날 페이지의 1, 2쪽에 해당하는 셈인데, 한적 영인본 등의 페이지를 연상하면 좋을 것이다.

7) 역자주: “ice hese”는 신약성서에 해당하는 만주어 표현이다. ice에는 새로운(新)의 의미가, hese에는 旨, 勅旨, 聖旨, 上諭 등의 의미가 있다.

크가 있으며, 다른 1책은 “南滿洲鐵道株式會社大連圖書館 昭.17.2.18”이라고 하였다. 붉은색 사각형 도장마크와 대련도서관 장서인 등이 찍혀 있다. 본서에는 판권지가 없고, 장서인으로 보아 대련도서관에 소장된 시기는 소화(昭和) 11년(1936)과 소화(昭和) 17년(1942)이다. 대련도서관 만주어 『신약』의 8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musei ejen isus heristos i tutabuha ice hese⁸⁾ . ujui debtelin .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새로운 성지[聖旨], 첫째 권)
enduringge ewangelium mattei i ulaha songkoi⁹⁾ .. (1-63 마태복음)
(성[聖] 복음 마태의 전[傳]한 대로)

2. musei ejen isus heristos i tutabuha ice hese . jai debtelin .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새로운 성지[聖旨], 둘째 권)
enduringge ewangelium marka i ulaha songkoi .. (1-39 마가복음)
(성[聖] 복음 마가의 전[傳]한 대로)

3. musei ejen isus heristos i tutabuha ice hese . ilaci debtelin .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새로운 성지[聖旨], 셋째 권)
enduringge ewangelium luka i ulaha songkoi .. (1-68 누가복음)
(성[聖] 복음 누가의 전[傳]한 대로)

4. musei ejen isus heristos i tutabuha ice hese . duici debtelin .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새로운 성지[聖旨], 넷째 권)
enduringge ewangelium iowang ni ulaha songkoi .. (1-53 요한복음)
(성[聖] 복음 요한의 전[傳]한 대로)

5. musei ejen isus heristos i tutabuha ice hese . sunjaci debtelin .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새로운 성지[聖旨], 다섯째 권)

8) 역자주: gese cf. hese 속표지의 서명은 hese로 나오는데, 본문은 모두 gese로 전사한 것이 보인다. 원문 권점(圈點)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대목이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새로운 성지(聖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조(新遺詔)”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중국어성경 가운데 “신약성경”을 “신유조서(新遺詔書)” “신유조성경(新遺詔聖經)” 등의 명칭으로 번역한 예가 있다.

9) 역자주: ㅼ아로 신부의 만주어 번역에서는 “마태복음의 첫째 편”을 “Enduringge Mateo-i Ewanželio-i ujui debtelin”이라고 한 것이 보인다. 참고, 金東昭, “東洋文庫藏 滿洲文語聖書稿本 研究”, 『神父全達出 會長 華甲紀念論叢』(1992), 大邱, 每日新聞社.

geren apostol i yabuha babe ejehe luka i bithe teofil de unggihe .. (1-69 사도
행전)

(여러 사도의 행한 바를 기록한 누가의 서신 테오빌로에게 보냈다.)

6. musei ezen isus heristos i tutabuha ice hese . ningguci debtelin .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새로운 성지[聖旨], 여섯째 권)

apostol pafil¹⁰) i geren roma niyalma de unggihe bithe .. (1-29 로마서)

(사도 바울이 여러 로마 사람에게 보낸 서신)

apostol pafil i koringt hoton i niyalma de unggihe dergi bithe .. (30-57 고린도
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의 사람에게 보낸 서신: 상)

apostol pafil i koringt hoton i niyalma de unggihe fegergi bithe .. (58-76 고린
도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의 사람에게 보낸 서신: 하)

apostol pafil i geren galat niyalma de unggihe bithe .. (77-86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갈라디아 사람에게 보낸 서신)

7. apostol pafil i efes hoton i niyalma de unggihe bithe .. (1-9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의 사람에게 보낸 서신)

apostol pafil i filipapi hoton i geren niyalma de unggihe bithe .. (10-16 빌립보
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의 여러 사람에게 보낸 서신)

apostol pafil i kolossiye hoton i geren niyalma de unggihe bithe .. (17-22 콜로
새서)

(사도 바울이 콜로새 성의 여러 사람에게 보낸 서신)

apostol pafil i tesalonik hoton i geren niyalma de unggihe dergi bithe .. (23-28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의 여러 사람에게 보낸 서신: 상)

apostol pafil i tesalonik hoton i geren niyalma de unggihe fefergi bithe ..
(29-32 데살로니가후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의 여러 사람에게 보낸 서신: 하)

apostol pafil i timotei de unggihe dergi bithe .. (33-40 디모데전서)

10) 역자주: 바울(Paul)을 “pafil”로 표기한 것은 만주어성경의 역자인 리포브초브가 그리스어
나 라틴어식 표기를 따르지 않고 러시아어 “파벨(Павел)”에 준해서 표기한 때문으로 보인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상)
apostol pafil i timotei de unggihe fejergi bithe .. (40-45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하)
apostol pafil i tit de unggihe bithe .. (46-49 디도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서신)
apostol pafil i filimong de unggihe bithe .. (49-50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
apostol pafil i gebereya niyalma de unggihe bithe .. (51-72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에게 보낸 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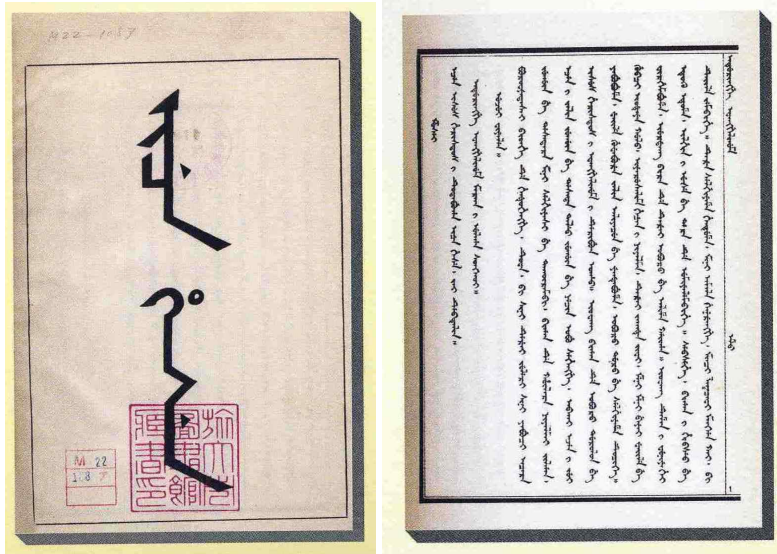
8. apostol yakob i hafu bithe .. (1-8 야고보서)
(사도 야고보의 통신[通信])
apostol piyeter i dergi hafu bithe .. (9-16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의 통신[通信]: 상)
apostol piyeter i fejergi hafu bithe .. (17-21 베드로후서)
(사도 베드로의 통신[通信]: 하)
apostol iowang ni dergi hafu bithe .. (22-29 요한일서)
(사도 요한의 통신[通信]: 상)
apostol iowang ni dulimbai hafu bithe .. (29-30 요한이서)
(사도 요한의 통신[通信]: 중)
apostol iowang ni fejergi hafu bithe .. (30-31 요한삼서)
(사도 요한의 통신[通信]: 하)
apostol ioda i hafu bithe .. (32-33 유다서)
(사도 유다의 통신[通信])
abkai ejen i babe genggiyelere iowang de sabubuha baitai ulabun .. (34-66 요
한계시록)
(하나님[天主]의 처소를 밝히시어 요한에게 보이신 일의 전[傳])

이 만주어 『신약전서』의 편집은 약간 독특하다. “현재 인쇄되어 나온 성경은 문자의 종류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모두 장절이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만주어 『신약전서』는 장절의 구분이 없다. 다만 27권을 8부로 나누었고, 각 1부는 나눈 페이지 수가 대체로 같은 분량이다. 이는 아마도 인쇄상의 편리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¹⁾

11) 渡部薫太郎, 『增訂滿洲語圖書目錄』[M], 昭和7年(1932), 大阪, 東洋學會, 43-44.

3. 대련도서관 만주어 『신약전서』의 번역 분석

<그림 3> 속표지 “ice hese”와 마가복음 1장 앞부분



전체적으로 볼 때 『신약전서』의 만주어 번역은 빈틈이 없으며, 언어가 질박하고 유창하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표준서면어를 사용하였으며 어법이 규범적이다.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본문 문장으로 비록 대다수의 문장이 다중 복문이나 구조가 명확하고 전후가 잘 조응하여 조금도 확실치 않은 대목이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i hala hacin i nimeku de hūsibuha utala niyalma be sain obuha . utala hutusa be bošome tucifi . cende imbe sambi seme gisurere be fafulahabi .

(그[예수]는 각종 병에 걸린 허다한 사람을 낫게 하였다. 허다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그를 안다고 말하는 것을 금하였다.) 마가복음 1:34

둘째, 번역이 정확하고 기교가 뛰어나다. 역자는 원문과 만주어의 언어상의 장벽을 잘 화해시켜서 외래문화 속의 새로운 성분을 만주화하였다. 외래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번역문 가운데 인명과 지명의 음역 외에 일부 기독교 용어, 예를 들어 “선지자” porofiyeta,¹²⁾ “복음” ewangelium, “천사” angel, “안식일” sabbata inenggi 등 음역 외래어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표 1>13)

선지자	porofiyeta
복음	ewangelium
천사	angel
안식일	sabbata inenggi

그렇지만 역자는 일부 어휘들은 만주어에 이미 있는 단어로 번역하였는데, 예를 들면 “제사장”은 lama, “제자들”은 šabisa, “향유”는 ilhai simen i muke이다.

<표 2>

제사장	lama ¹⁴⁾
제자들	šabisa
향유	ilhai simen i muke ¹⁵⁾

그러나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번역문 가운데 음역어 만주어는 만주어의 규칙에 엄격히 부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 iyerusalim”은 만주어 관습에 의하면 yerusalim으로 해야 한다. 또 “선지자 porofiyeta”와 “가버나움(지명) kaparnagom” 등의 단어도 음역 방식이 만주어의 표준 방식과 상당히 거리가 멀다.

셋째, 언어가 질박하다. 역자의 만주어 능력이 대단하지만 선택한 어휘는 간단한 상용어들이며, 벽자가 없고 더욱 미사여구나 군더더기가 없다. 뉘앙스는 중간톤으로 감정적인 색채를 띠지 않았다. 이같은 간결하고 질박한 언어 스타일은 다른 종류의 언어로 된 성경 본문과 조화로운 일치를 유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만역본 『신약전서』의 언어적 특징을 통해 우리는 역자의 깊고도 풍부한 만주어에 대한 조예와 정밀하고 섬세한 번역 기교를 볼 수 있다.

4. 만주어 『신약전서』의 판본과 역자

만주어 『신약전서』는 연활자로 간행된 역사상 첫 번째의 만주어 도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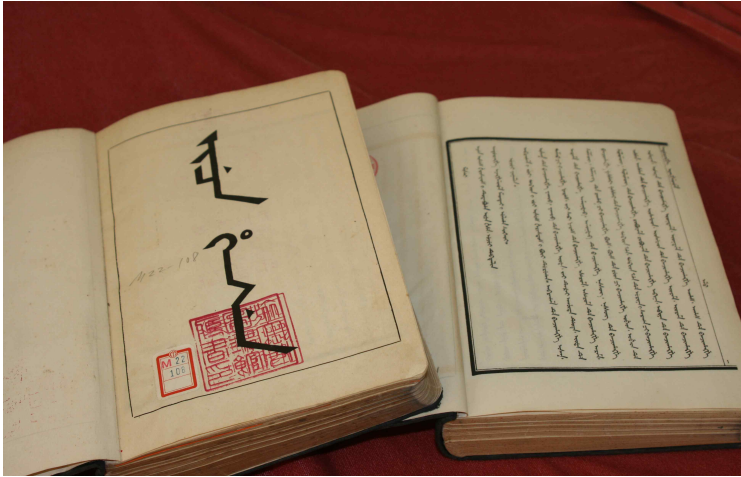
12) 역자주: porofiyeta cf. porofiyeta

13) 역자주: 표는 한국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역자가 보충한 것이다.

14) 역자주: 라마. 티베트 라마교의 정신적 스승.

15) 역자주: 꽃의 즙액으로 된 물(水).

<그림 4> 대련도서관 만주어 『신약전서』



온전한 형태로 세상에 전하는 매우 드문 자료인데, 중국내의 다른 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바를 아직 보지 못하였다.¹⁶⁾

일본 천리대학교(天理大學校) 도서관 소장본 1부는 서명이 『만주어신약전서(滿洲語新約全書)』로 규격은 25×17×9이다.¹⁷⁾ 대영도서관 소장본 5부, 영국성서공회 3부, 런던 인도사무처도서관 문서기록부 소장본 1부가 있다. 러시아과학원 아시아 민족연구소 소장본 1부(1864년 수집)는 8권인데, 매 권당 61, 37, 57, 40, 52, 60, 130, 50 페이지로 나누어져 있다. 매 페이지당 12행 만주어로 되어 있는데, 크기는 약 30×18과 24×13의 2종이 있다.¹⁸⁾ 미국 국회도서관 소장본 6부도 있다.¹⁹⁾

16) 역자주: 金東昭, “Tungus語 聖書에 關해서”, 『알타이학보』 9 (1999)를 보면 중국 내 다른 소장처의 만주어성경 소장 사항을 李德啓와 富麗 등의 자료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 기존의 만주어성경 목록에 소개되지 않은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주립도서관(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 소장본이 있는데, 웨스턴시드니대학의 케니 왕(Kenny Wang) 박사에게 의해 디지털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A two volume copy of the New Testament in Manchu is held at the 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under call numbers G 7 V 22 v.1 and G 7 V 23 v.2. This copy was published on or before 1869 (as it bears the NSW Public Library 1869 stamp throughout the NT). Digital photo reproduction of the above copy has been graciously undertaken and is copyrighted by Dr Kenny Wang, Ph. D., BA, Lecturer in Linguistics and Translatio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http://www.orthodox.cn/bible/manchu/index.html>). 참고로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주립도서관에는 만한대역본 마가복음도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온다. 서명은 “Bible. N.T. Gospels. Mark. Chinese & Manchu. Gospel according to St. Mark.”이며, 청구기호는 “G 5 U 25”이다.

17) 渡部薫太郎, 『增訂滿洲語圖書目錄』[M] 昭和7年(1932), 大阪, 東洋學會, 43-44.

18) 金東昭, “東洋文庫藏現存滿文聖經稿本介紹”[J], 金貞愛 譯, 『滿族研究』 4 (2001), 92-96.

만주어 『신약전서』의 역자 S.V. 리포브초브(利波夫措夫)의 번역 출판 과정에 대해서는 중국을 포함한 각국 여러 학자들의 소개가 나와 있다. 그러나 이들의 관점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초옥추(肖玉秋)는 “동방정교회 서적을 가장 일찍 중국어로 번역한 것은 제 8회 선교단 학생인 리포브초브로 1794년부터 1808년간에 신약의 만주어 번역을 완성하였다.” “리포브초브의 만주어 역본은 러시아 성무원(聖務院)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영국성서공회에 의해 출판되었으며, 천주교 선교사는 동북교회학교에서 리포브초브의 역본을 신학 교재로 사용하였다. 또 그것으로 만주인에게 선교하였다.” “만주어 신약 번역의 목적은 알바진(雅克薩) 전쟁 포로²⁰⁾ 및 후대의 동방정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였다.²¹⁾

리포브초브는 “러시아과학통신원의 일원으로 저명한 만학가(滿學家)이다. 살마이성(薩馬爾省) 리파부카촌(利波夫卡村)에서 출생, 1783년 카잔(Kazan, 喀山) 선교사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1794-1807년 러시아 동방정교회 북경 주재 제8회 선교단(Russian Ecclesiastical Mission)의 일원이 되었다. 1808년 아시아 만한어(滿漢語) 통역원직을 맡은 이래로 직책을 수행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주요 저작과 번역은 『명사(明史)』(譯稿), 『과학원도서관관장중일문서록(科學院圖書館館藏中日文書錄)』(공편, 러시아 제3부 中國書目), 『중국기사(中國紀事)』(手稿), 『토르구트의 러시아 이전과 준갈이로의 회귀에 관하여(關於土爾扈特遷往俄國及從俄國逃回準噶爾的經過)』, 『준갈이개술(準噶爾概述)』, 『신약(新約)』(만역본, 부분, 1822), 『중국 황제에게 진공하는 각국 민족소개(向中國皇帝進貢的各民族介紹)』, 『중화제국대사간기(中華帝國大事簡記)』, 『이번원칙례(理藩院則例)』, 『라틴어한어사전』(手稿, 3종), 『만한노어사전』(手稿), 『만문식자과본(滿文識字課本)』(石印, 1839)이다.”²²⁾

일본학자 와타베 쿤타로(渡部薰太郎, 1861-1936) 편저의 『증정만주어도서 목록(增訂滿洲語圖書目錄)』에 『만주어신약전서(滿洲語新約全書)』가 기록

19) 中國正教會網, 新約聖經(1822-1835年斯捷凡·利波夫佐夫滿文翻譯)[M/CD][2007-12-27]. <http://www.orthodox.cn/liturgical/bible/manchu/index.html> .

20) 역자주: 청조와 러시아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많은 러시아인들이 북경으로 끌려왔는데, 중군신부였던 막심 레온제프 신부는 청조의 도움으로 불교사원을 개조하여 정교회 예배당을 마련하고 만주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선교하였다. 이 당시 청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청조는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조선 효종대의 나선정벌이다. 청이 러시아와 맺은 네르친스크 조약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으며 당시의 조약문에는 만주어가 들어있다. 참고, 남정우, “중국정교회 역사”, 『동방정교회 이야기』 (2003).

21) 肖玉秋, “북경 주재 러시아선교단의 경서한역과 간행활동약술(俄國駐北京傳教士團東正教經書漢譯與刊印活動述略)”[J], 『世界宗教研究』(2006), 93-103.

22) 中國社會科學院文獻情報中心, 『俄蘇中國學手冊』[M],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6), 6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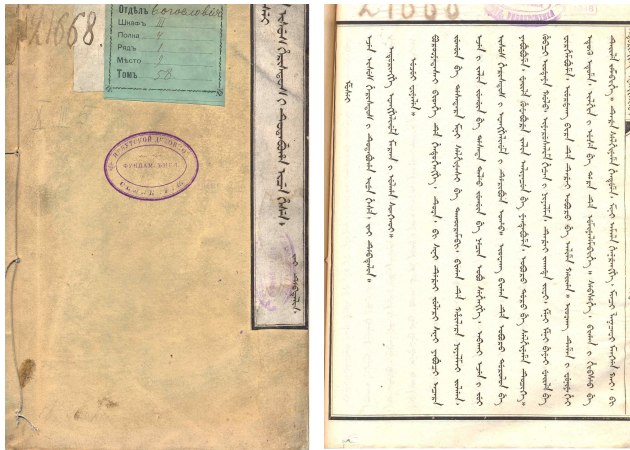
되어 나오는데, “1821년 영국 러시아성공회 대표 핑커톤(賓加頓) 박사는 만주어에 정통한 러시아인 스테판 리포브초브를 고용하여 번역에 착수하였다.

1822년 『마태복음』의 7장을 최초로 번역했으나 러시아에서 출판하지 못하였다. 1823년 『마태복음』 550부를 인쇄하고, 1825년 『신약』 전체를 번역하였다. 1835년(일설에는 1836년) 만주어 『신약전서』를 1,000부 인쇄하였다. 1855년 만주어 『신약전서』 200부를 선편으로 상해로 운반하던 도중 자바섬을 지나다가 해상 재난이 발생하여 『신약전서』 200부 가운데 단 1권도 남기지 못하고 모두 잃어버렸다.”²³⁾ 김동소는 역자의 영문명을 S. V. Lipovtsov라고 하였고, 만주어 『신약전서』의 번역 연대 또한 1825년이라고 보았다.²⁴⁾

5. 대련도서관본과 중국정교회본 비교

중국정교회 홈페이지의 영문 설명 “『신약전서』(1822-35) 스테판 리포브초브의 만주어 번역”²⁵⁾이라는 글에서 만주어 신약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고증을 하였다. 또 단행본 만주어 신약 책표지, 간행 기록, 전체 내용의 이미지를 수록하였다. 현재 번역해서 소개하면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그림 5> 중국정교회 마가복음



23) 渡部薫太郎, 『増訂滿洲語圖書目録』[M], 昭和7年(1932), 大阪, 東洋學會, 43-44.

24) 金東昭, “東洋文庫藏現存滿文聖經稿本介紹”[J].

25) 中國正教會網, “The New Testament of Our Lord Jesus Christ published serially in 1822, and completed whole NT in 1835 translated into the Manchu language by Stepan Vaciliyevich Lipovtsov.”

musei ejen isus heristos i tutabuha ice hese jai debtelin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새로운 성지(聖旨)(musei ejen isus heristos i tutabuha ice hese)』 시리즈(단행본) 출판 1822년, 신약 전체 완성 1835년, 리포브초브가 만주어로 번역하였다. 이르쿠츠크주립도서관에 소장된 만주어 『성마가복음서(聖馬可福音書,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St Mark)』는 제작한 PDF 문건이 Fr. Dionisy Pozdnyaev에 의해 제공되었고, 또 JPG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만주어 신약은 1822년 시작해서 부분 출판을 하다가 전체를 1835년에 출판하기 시작하여 1929년 상해에서 재판을 냈다. 그러나 PDF 문건에는 간행된 일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페이지 수는 순서대로 1에서 39까지이고, 다만 만주어 양식으로 편집 배열하였으며, 각 페이지는 펼쳐진 2면을 전부 가리킨다. 따라서 마지막 페이지(39/80)의 단어는 ‘아멘(만주어, ameng)’으로 원문 내용은 완전한 것이지만 39(80)페이지의 오른쪽 아래의 약간 찢겨진 흔적이 책의 뒷표지가 없어진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은 아마도 최초의 1822년 계통의 단행본이거나 아니면 1835년에 완성된 신약의 한 복음서의 후쇄본일 것이다. 역자는 스테판 바실리에비치 리포브초브(1770-1841)이다. 그는 1794년 8명의 러시아 성직원 사절단의 한 사람으로 북경에 도착한 후 만주어를 배웠다. 그는 런던 영국성서공회의 위탁으로 신약을 만주어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1822년 출판한 것이 바로 그의 역본이다. 최초에는 시리즈 형식으로 출판하였고, 나중에는 완성된 『신약전서』를 출판하였다.”²⁶⁾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글 후반부에 각종 출전이 나와 있는데, 이에 의하면 서술 내용은 믿을 만한 것이다. 사이트 홈페이지에 올라온 단행본 이미지 자료는 매우 분명하고 뚜렷한데, 이를 비교한 결과 대련도서관 소장 만주어 『신약전서』의 제2부(jai debtelin, 둘째 권)인 마가복음과 같은 판이다. 그러나 장정 형식이 약간 다르고 선장(線裝)이며,²⁷⁾ 판심은 만주어 각부 명칭과 만주어 페이지 중간에 대련도서관 소장본보다 단어미(單魚尾)가 많이 나왔고, 전형적인 중국 고서 장정 형식이다. 따라서 홈페이지상의 단행본은 분명 대련도서관 소장본보다 이른 것으로 보인다. 대련도서관 연활자본 만주어 『신약전서』는 1929년 상해에서 간행한 재판 같은데, 이 역시 아직은 알 수 없다.²⁸⁾

26) 中國正教會網, 新約聖經(1822-1835年斯捷凡·利波夫佐夫滿文翻譯)[M/CD][2007-12-27].

27) 역자주: 중국정교회 사이트에 소개된 만주어성경은 중국 고서 제책 방식의 하나인 4개의 구멍을 뚫어서 책을 묶는 4침(針)으로 제작된 것을 볼 수 있다. 존 로스 목사의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으로 알려진 심양 문광서원에서 간행된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 역시 4침 방식이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제책 방식이 주로 5침인 것과는 다른 것이다.

6. 결론

이상 결론적으로 만주어 『신약전서』의 역자는 19세기 러시아 동방정교회 선교사 리포브초브²⁹⁾이며, 각국에서 현재 소장한 판본사항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대련도서관 소장본은 일본이나 러시아 판본과 분명히 다르고, 또 일본과 러시아의 판본 간에도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 연원 관계는 훗날의 고증을 기다린다.

성경은 서양의 철학, 윤리, 도덕, 문학, 예술, 역사, 지리, 사회, 민속 등 제방면의 내용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서양문명 심지어 세계문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성경의 중요한 역할은 여러 문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발휘되어 나온 것으로 더욱 19세기 “외국선교사가 로마자 병음으로 각지의 소수민족을 위해 번역한 성경은, 보다 객관적인 면에서 중국의 문맹퇴치와 문화교육사업을 촉진시켰다.”³⁰⁾ 그러므로 만주어 『신약전서』의 연구는 기독교 경전으로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만주어 번역 자체의 연구에도 일정한 의의를 지니며, 근대 중국의 외국과의 문화교류 연구에도 일정한 현실적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Keywords)

대련도서관, 만주어, 신약전서, 스테판 리포브초브.

Dalian library, Manchu, the New Testament, Stepan Vaciliyevich Lipovtsov.

(투고 일자: 2011. 11. 11, 심사 일자: 2012. 2. 20, 게재 확정 일자: 2012. 2. 24)

28) 역자주: 원본을 직접 열람하지 않아서 보다 정확한 것은 후일로 미루어야 하겠지만, 현재 역자가 보기에 대련도서관본 만주어 『신약전서』는 1929년 상해에서 출판된 성경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성경은 1927년 G. W. Hunter 선교사의 재요청으로 중국 신강성 이리(伊犁) 지구에서 만주어, 엄밀하게는 시버어(錫伯語)를 사용하는 시버족들의 선교를 위해 1929년 상해에서 출판된 것이다. 이들과 같은 계통의 성경이 대영도서관, BFBS, 런던대학교 등에 각각 1권씩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 金東昭, “Tungus語 聖書에 關係서”, 『알타이학보』 9 (1999).

29) 斯捷凡·利波佐夫, 즉 斯捷凡·利波夫佐夫 또는 利波措夫, 利波夫索夫.

30) 陳述軍, “성경의 한역과 중국에서의 한역성경의 영향(聖經漢譯及漢譯聖經在中國的影響)”[D], (2006), 地點 華中師範大學具體學院. 역자주: 한글 성경 번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스(John Ross, 1842-1915) 목사도 만주지역 개척 선교사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저술로 보아서 만주와 조선에 대한 그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존 로스 목사는 그의 저서 *History of Corea*의 “The Corea Language” 편에서 조선어와 중국어의 문법적 관계보다 조선어를 만주어, 몽골어 등과 비교하는 일이 중요하며, 또 조선어와 만주어의 긴밀한 연관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참고, 존 로스, 『존 로스의 한국사(*History of Corea*)』, 홍경숙 역 (서울: 살림, 2010).

<참고문헌>(References)

1) 원 논문 참고문헌

- 金東昭, “東洋文庫藏現存滿文聖經稿本介紹”[J], 金貞愛 譯, 「滿族研究」, 2001(4).
- 渡部薰太郎, 『增訂滿洲語圖書目錄』[M], 大阪, 東洋學會, 昭和7年(1932).
- 劉叢如等, “論『聖經』英譯及其重要版本”[J], 「青海民族研究」, 2006.
- 陳述軍, “聖經漢譯及漢譯聖經在中國的影響”[D], 地點 華中師範大學具體學院, 2006.
- 肖玉秋, “俄國駐北京傳教士團東正教經書漢譯與刊印活動述略”[J], 「世界宗教研究」, 2006.
- 中國社會科學院文獻情報中心, 『俄蘇中國學手冊』[M],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6.
- 中國正教會網, 『新約聖經』(1822-1835年 斯捷凡·利波夫佐夫滿文翻譯)[M/CD], 2007.
- <http://www.orthodox.cn/liturgical/bible/manchu/index.html>.

2) 역주 참고문헌

- 김동소, “東洋文庫藏 滿洲文語聖書稿本 研究”, 『神父 全達出 會長 華甲紀念論叢』, 大邱: 每日新聞社, 1992.
- 김동소, “3種의 滿文主祈禱文”, 「알타이학보」 5, 한국알타이학회, 1995.
- 김동소, “Tungus語 聖書에 關해서”, 「알타이학보」 9, 한국알타이학회, 1999.
- 김동소, “最初 中國語·滿洲語 聖書 譯成者 賀清泰 神父(P. Louis de Poirot, S. J.)”, 「알타이학보」 13, 2003. 6.
- 남정우, 『동방정교회 이야기』, 서울: 쿤란출판사, 2003.
- 송강호, 『중국어성경과 번역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모리슨, 2007.
- 조길, “北京語의 滿洲語 基層 研究: 청대 북경어의 언어 접촉”, 송강호 역, 「古書研究」 26, 한국고서연구회, 2008.
- 존 로스, 『존 로스의 한국사(History of Corea)』, 홍경숙 역, 서울: 살림, 2010.